

#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의 근대적 주거지식(1894-1910)

김명선<sup>1\*</sup>

## Knowledge of Modern housing of the Textbooks for Physiology and Hygiene in Korea 1894-1910

Myung-Sun Kim<sup>1\*</sup>

**요약** 개항 이후 이과 및 박물과목에서 교수된 생리 및 위생분야에 사용된 교과용도서 안에 포함된 주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은 모두 위생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채광, 환기, 건조 등의 조건이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거의 위생적 관리 및 계획에 관한 간단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들 내용을 생리 및 위생분야 안에서도 장기설, 인체생리학, 공기의 성질에 관한 물리·화학적 지식 등을 근거로 삼아 전개되었기에,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지식으로서 보급되었다. 또한 이후 일제강점기 근대적 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에서 다루어진 채광, 환기, 건조 등의 항목은 중요한 주거계획 요건으로 취급되었다.

**Abstract** The new knowledge in the textbooks for Physiology and Hygiene in Korea 1905-1910 w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hygiene. Lighting, ventilation, dryness were proposed as main conditions for hygienic housing, for which management and planning methods were explained. This knowledge was taught as 'scientific' or 'modern' knowledge based on the physiological theory and air property, thereafter the conditions were placed as important conditions of modern housing.

**Key Words** : modern housing, hygiene, physiology, textbook

### 1. 서론

개항 이후 유입된 서구의 근대적 지식들 중에는 새로운 내용의 주거담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인들이 단행본(번역, 저술), 신문, 잡지, 학회지 등의 매체를 통해 이를 접했다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은 '교과용도서'를 통해서도 접하였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신문, 잡지, 학회지를 통해 유포된 주거담론들은 많이 다루어진 반면, 교과용도서를 통한 새로운 주거담론의 유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갑오(甲午, 1894)년 학제개혁으로 관립·공립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내용이 일제히 규정된 이후 교과용도서는 주거에 대한 근대적 지식의 주요한 이입 경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거관련 내용은 생리 및 위생분야 수업에 사용된 교과용도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연구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약 15년간 각급 관

공립학교에서 교수된 생리 및 위생분야에서 사용된 교과용도서를 발굴, 수집하여 어떠한 주거관련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시 교육제도의 변화과정에서 각급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용도서가 일본의 영향 하에 통제되었음을 살펴보고, 생리 및 위생분야가 교수된 상황과 이 분야의 대표적인 교과목도서에서 주거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한말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목도서를 통해 유포된 근대적 주거지식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겠다.

### 2. 교육제도의 근대화와 일본종속화 (1894-1910)

갑오년 학제개혁으로 조선의 학교교육은 근대적 형식으로 재편되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로 學務衙門(이

<sup>1</sup>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접수일 08년 07월 28일

수정일 08년 10월 13일

\*교신저자: 김명선 (rosaria@sunmoon.ac.kr)  
게재확정일 08년 10월 16일

[표 1] 각급 학교별 이과 혹은 박물 과목의 생리 및 위생분야 교수내용 (1906-1910)

\*1894-1905년에는 학교급별 이수과목 및 이수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1906-1909				1909-1910			
학교·급별(년제)	과목	학년(주당 시간): 구체적 내용		학교·급별(년제)	과목	학년(주당 시간): 구체적 내용	
보통학교	(4) 이과	4(2): 간단한 물리화학 현상, 인신생리위생의 개요		보통학교	(4) 이과	4(2): 간단한 물리화학 현상, 인신생리위생의 개요	
고등학교	본과(4) 박물	3(2): 동물, 생리, 위생		고등학교	(4) 박물	2(2): 동물, 생리	
	예과(1) 박물	1(1): 식물, 동물, 광물 및 생리의 개요				3(2): 생리, 위생	
	보습과(1) 박물	1(1): 동물, 식물, 광물 및 생리			(3) 박물	2(3): 동물, 생리, 위생	
고등 여학교	본과(3) 이과	1(2): 생리, 위생, 화학		고등 여학교	본과(3) 이과	1(2): 동물, 생물, 생리, 위생	
	예과(2) 이과	없음					
-	-	-		실업학교	(3) 이과	3(2): 화학, 생리위생	
농림학교	본과(2) -	-		농림학교	본과(3) 박물	2(3): 동물, 식물, 인체, 생리	
사범학교	본과(3) 박물	1(2): 인신, 생리, 식물 및 동물		사범학교	본과(3) 박물	1(2): 생리, 위생, 식물	
외국어 학교	본과(4) 이과	없음		외국어 학교	(3) 이과	2(2): 박물, 생리	
	연구과(2) 이과	없음					
	속성과(2) 이과	없음					

듬해 3월부터 學部로 개편)이 신설되었고, 「한성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관제」 등 각종 학교관제들을 통해 학령 개념을 도입한 교육체제가 도입되었다.<sup>1)</sup>

그러나 1906년 설치된 통감부는 조선정부가 마련했던 각종 학교관제들을 일제히 폐지한 후 그 해 8월 27일 새로운 「학교령」을 공포했다.<sup>2)</sup> 이 과정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갑오년 개혁 당시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번역, 편찬, 검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구로 학부 안에 편집국이 설치되어 있었는데,<sup>3)</sup> 1905년부터 학부에 일본인이 고용되는 한편 편집국에서는 일본어로 된 교과용도서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1906년부터는 학부에서 편찬한 도서나 학부대신이 인가한 도서만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sup>4)</sup>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제정되어 1905년 11월 맺어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많은 애국계몽 운동단체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통제도 시작되었다. 당시 사립학교들은 다양한 종류의 교과용도서를 사용했는데, 학부 검정과 인가를 받은 도서만 사용하도록 규제한 것이다.<sup>5)</sup> 따라서 1905년부터

터 관공립학교, 1908년부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용도서에 대해 학부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 3.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

한말 생리 및 위생 분야는 ‘理科’ 혹은 ‘博物’과목에서 교수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과학분야 과목에 해당한다. ‘理科’과목에서는 간단한 자연현상, 물리, 화학, 식물, 동물, 광물, 생리, 위생 분야등이 학년별로 나누어 가르쳐졌다. 교재로 사용된 교과용도서에는 물리와 화학을 합한 ‘理化’, 식물, 동물, 광물의 대강을 합한 ‘博物’, 생리와 위생을 합한 ‘生理衛生’이라는 명칭이 많았다. ‘博物’과목은 식물, 동물, 광물만을 다루는 경우와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동물학 등도 포함하여 자연과학 전반을 다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용한 교재는 대개 이과과목의 그것과 겹쳤다.

이과 및 박물과목에 포함된 여러 분야 중 생리 및 위생은 갑오년 개혁 때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쳐졌다. 1895년 「소학교교칙대강」의 교수요지에 “인신의 생리와 위생의 大要를 授함을 可함”이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했고, 1906년 「보통학교령시행규칙」에서도 “인신의 생리위

1) 『(구한국)관보』 1895.4.21.  
 2) 『(구한국)관보』 1906. 8.27. 「보통학교령」을 통해 소학교라는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꾸고 수업연한은 6년에서 4년으로 낮추었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고등학교령」을 통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고 수업연한은 7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기간과 내용이 부실해졌다.  
 3) 『(구한국)관보』 1894.6.28. 참의 1명, 주사 4명이 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4) 『(구한국)관보』 1906.8.31: 9.1: 9.3: 9.4.

【표 2】 한말 발행된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

\* 발행년도 중 처음은 초판년도, 두 번째는 내용을 확인한 발행년도

교과용도서명	편·저자(역자)	발행소	발행년도	내용 확인	주거관 련내용	내용 정도
中等生理衛生教科書	三島通良	東京: 金港堂書鋪株式會社	1904, 1905	○	○	상세
普通生理衛生學	大森千藏 編	東京: 松榮堂	1899, 1901, 1903, 1906	○	○	상세
中等生理學(全)	(普成館翻譯部)	京城: 普成館	1907	○	○	상세
中等生理學(解說附圖)	(金夏鼎: 김하정)	京城: 普成館	1907	○	○	상세
初等衛生學教科書	(安鍾和: 안중화)	京城: 廣學書鋪	1907, 1909	○	○	간단
中等生理衛生學	(任璟宰: 임경재)	京城: 徽文館	1908, 1911	○	○	간단
初等生理衛生學大要(全)	(安鍾和: 안중화)	京城: 廣德書館	1909	○	○	간단
新編生理學教科書	(安商浩: 안상호)	京城: 義進社	1909	○	○	간단

생의 大要를 教授”한다고 명시되었으며, 1908년 「고등여학교령」에서는 본과에서 “生理及衛生の 大要”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었다. 또한 1906년 공포된 「고등학교령」과 「고등학교령시행규칙」에는 박물이 교수되도록 규정되었는데, 박물의 교수요지를 보면 本科에서 “인체의 化成 생리及위생의 大要”를, 豫科와 補習科에서 “동물, 식물, 광물 及 생리의 大要”를 가르치도록 했다. 즉, 소학교(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는 이과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박물과목에서 생리 및 위생분야를 가르친 것이다.

표 1은 1906-1910년 각급 관공립학교의 이과 혹은 박물과목 중 생리 및 위생 분야에서 교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sup>6)</sup> 소학교부터 실업학교까지 그리고 농림·사범·외국어학교까지, 전체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생리 및 위생분야가 가르쳐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장에서 본 대로 1908년부터는 사립학교의 교과용도서도 학부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들 과목과 분야는 사립학교에서도 교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따라서 관공·사립학교를 거친 학생들은 모두 이과 및 박물과목을 배웠고 이들 과목의 한 분야로 생리 및 위생분야 수업을 들었다.

#### 4. 생리 및 위생 분야 교과용도서의 주거관련 내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에 어떤 내용의 주거관련 내용이 등장하는가. 2장에서 살

펴본 대로 학부는 관공·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직접 편찬하거나 검정·인가제도를 통해 통제했다. 또한 1909년부터 191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당시 검정이나 인가를 받아 사용되던 도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教科用圖書一覽』으로 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급 관공·사립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용도서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는 이 「교과용도서일람」을 토대로<sup>8)</sup>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발행된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 중 주거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8종의 도서를 정리한 것이다.<sup>9)</sup> 그 내용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제일 비결은 자기 신체를 강건케 함에 在 乎니라. 其次에 음식, 의복, 주거의 청결이라”<sup>10)</sup>고 하여 간단히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것부터 “晨起 후 臥房의 門窓을 맞당히 大開호야 新 공기로써 교환호지오”<sup>11)</sup>라며 실내환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기의 유통이 不好한 各 室 내에는 通상 外界의 공기 중에 존재호는 것보다 두 배 혹은 삼 배의 炭酸 瓦斯를 함유호며 ... 실내는 人工의 燃料를 因호야 건조호 故로 ... 실내에 塵埃를 生호 우려가 有호며”<sup>12)</sup>라

8) (大韓帝國)學部編輯局, 『教科用圖書一覽』, 4판(1909.12.1 조사, 1910.1 발간), 5판(1910.7.1 조사, 1910.7 발간)은 확인되고, 1~3판이 1909년 3차례 조사·발간된 듯하지만 자료는 찾을 수 없다. 6판(1911.2.28조사)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하였다. 박종석, 앞의 책, 73-79면 참조.

9) 『教科用圖書一覽』과 교육학 분야에서 나온 자료집과 기존 연구들에서 한말 발행된 교과용도서명을 확인한 후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였다. 이용한 기존 연구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문화사, 197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사료집성』 I-X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4;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도서』, 교육출판사, 1973;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이면우, 앞의 책; 박종석, 앞의 책.

10) 任璟宰(譯述), 『中等生理衛生學』, 京城: 徽文館, 1908, 115면.

11) 安鍾和(譯述), 『初等衛生學教科書』, 京城: 廣學書鋪, 1909, 13-14면; 安鍾和(譯述), 『初等生理衛生學大要(全)』, 京城: 廣德書館, 1909, 38면.

12) 安商浩(譯述), 『新編生理學教科書』, 京城: 義進社, 1909, 9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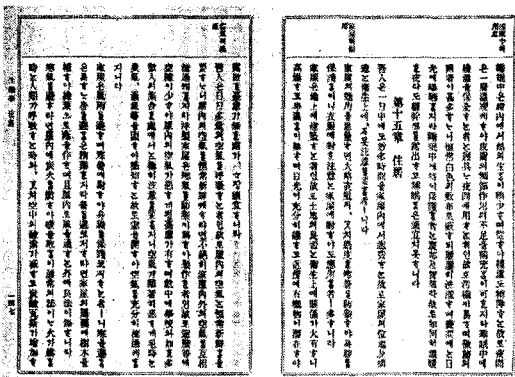
6) 이면우, 앞의 책, 166-170면에서 발췌 정리.

7)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08년 현재 관·공립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사립학교 수는 5,000여 개였고, 1908년 사립학교령 공포로 많은 사립학교가 인가에서 제외된 후 1910년 5월 현재 조사에서도 2,161교에 이를 만큼, 상당히 많았다. 김성학, 『서구 교육학 도입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69면.

하여 실내의 원활한 공기유통이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이 아주 간략한 언급에 그치는 경우라면, ‘住居’ 혹은 ‘主家’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주거위생을 좀더 상세히 다룬 책들도 있다(표 2 참조).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4.1 金夏鼎(編譯), 中等生理學(解說附圖)(京城: 普成館, 1907)

이 책은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용도서의 대표적 예로서, 내용은 普成館翻譯部 譯述, 『中等生理學(全)』(普成館, 1908)과 같다. 이 두 책은 ‘생활작용’과 ‘생활조건’의 전·후편으로 구성되었고, 전편 생활작용은 신체 각 기관의 구조 및 작용에 관한 내용을, 후편 생활조건은 신체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 및 위생상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림 1] 普成館翻譯部(譯述), 『中等生理學(全)』(京城: 普成館, 1908)의 ‘下篇 生活條件’ 중 ‘제15장 住居’ 부분

주거관련 내용이 나오는 곳은 ‘후편 생활조건’ 중 ‘제11장 공기’와 ‘제15장 주거’이다. 먼저 ‘제11장 공기’ 항목에서는 공기의 좋고 나쁨이 신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한 후, 특히 협소한 실내에서 여러 명이 같이 거주하거나 많은 땀감을 땀 경우 실내공기가 현저하게 나빠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방지법도 제시하였다. 충분한 개구부를 마련하여 실 안팎의 공기를 교환하도록 집에 충분한 개구부를 마련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벽을 이루는 판자, 장지문, 벽토 등에 공극을 두라고 했다.<sup>13)</sup>

이어서 ‘제15장 주거’(그림 1)에서는 주거의 효용성이 추위와 더위, 비람과 비를 막아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는 전제로 시작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지내므로 가옥의 위치와 구조가 위생에 중요하다고 한 후 구체적으로 5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주택지로 적합한 대지는 높고 그 토양이 건조하며 채광이 충분하고, 근처에 오염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사람이 발생하는 탄산가스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므로 실내의 공기유통을 끊임없이 시켜야 한다고 했다.<sup>14)</sup> 셋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화로를 피우는 것이 통상적인데, 연소할 때 공기 중의 산소를 감소시키고 탄산가스를 증가시키므로 “실내 공기유통”이 필요하지만 이는 방한문제와 대치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양 가옥”에서는 난로에 연통을 달아 외부로 탄산가스를 배출하지만, “我邦”의 화로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탄산가스가 실내에 정체되므로 두통이나 실신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sup>15)</sup> 넷째, 주택에서 습기를 막는 데 주의해야 하는데, 습기는 대개 지면에서 올라오므로 마루밑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실내 낮은 부분이나 벽으로도 습기가 생기므로 자주 불을 때어 습기를 없애라고 했다.<sup>16)</sup> 실내건조를 유지하도록 마루밑 공기를 유통시키고 난방을 통해 습도를 낮추라는 것이다. 다섯째, 독서, 재봉 등의 활동을 하는데 실내가 밝아야 함은 물론이고, 실내일조가 되면 습기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니 창을 크게 내고 障子(장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실내채광과 일조를 통한 실내건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실내채광에는 남향 집이 실내채광에 유리하지만 모든 실을 다 남향으로 할 수 없으니 “常居”하는 실과 침실처럼 상용하는 실을 남향으로 하고 상용하지 않는 실은 다른 향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다.<sup>17)</sup>

이렇듯 이 책은 주택에서 공기유통, 건조, 채광, 일조 등의 조건이 우수한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환기나 난방과 같은 주거관리 측면 뿐 아니라 난방장치, 방의 위치선정 등과 같은 주거계획적 측면까지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

한편, 실내 습기를 막는데 “我邦의 온돌은 世人的稱賞하는 바-나라”<sup>18)</sup>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등장하는 “我邦” 즉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 후자가 일본을 말한다면 전자는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번역 원본이 일본어 책이고, 온돌 부분은 번역자 김하정이 삽입한 내용

13) 金夏鼎(譯述), 『中等生理學(解說附圖)』, 京城: 普成館, 1907, 95-96면.

14) 같은 책, 112-113면.

15) 같은 책, 1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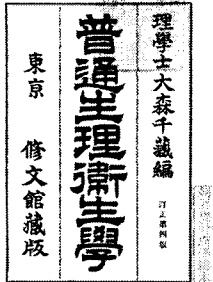
16) 같은 책, 114면.

17) 같은 책, 115면.

18) 같은 책, 114-115면.

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보성관번역부가 번역한 『中等生理學(全)』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하정은 위생의 관점에서 온들의 우수성을 번역과정에서 새삼스레 인식하고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4.2 大森千藏(編), 普通生理衛生學 (東京: 松榮堂,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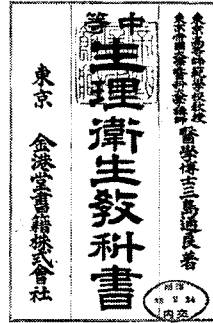
[그림 2] 大森千藏(編), 普通生理衛生學 (東京: 松榮堂, 1906) 표지

일본인 大森千藏이 편찬한 『中等生理衛生教科書』는 동경에서 일본어로 발행되었지만 번역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99년 초 판본이 나온 이래 1901, 1903, 1906년 계속 간행되었고 1906년 판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총 19편으로 나누어 신체 각 부분의 생리작용을 다루는데, 그 중 '제9 호흡편下'의 한 장으로 '主家'가 등장한다.

주거계획적 내용으로는 주거지, 건축재료, 실내채광이 다루어지는데, 주거지는 높고 건조하며 토양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습지에 짓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했고, 건축재료는 견고하고 水火에 견딜 뿐 아니라 공기투과성이 좋아 실내의 공기교환이 잘 되어야 하지만 전도율은 낮고 건조한 것이 좋다고 했으며, 거실을 남향으로 하면 여름철에 서늘하고 겨울철에 따뜻할 뿐 아니라 채광이 잘 된다고 했다.<sup>19)</sup> 이러한 내용은 앞의 『中等生理學』과 유사하면서 좀 더 간단하다. 이 책에만 나오는 내용으로는 침실과 거실을 별도의 실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이 있지만,<sup>20)</sup>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주거관리 내용으로는 실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방법과 청소 및 실내건조 요령 등이 추가되어 있다.

#### 4.3 三島通良(著述) 中等生理衛生教科書 (東京: 金港堂書鋪株式會社, 1905)

일본인 저자 三島通良이 1906년 동경에서 출판한 『中等生理衛生教科書』 역시 번역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신체의 구성과 각 기관의 생리적 기능,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으로 나누어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편 피부 및 체온'의 한 장으로 '의복'과 함께 '주거'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 집의 향, 채



[그림 3] 三島通良(著述) 中等生理衛生教科書(東京: 金港堂書鋪株式會社, 1905) 표지

광, 환기, 방, 청결법 등을 다루었다.

먼저, 주거지는 “신분,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능하면 주위가 청결하고 채광과 飲水 조건이 좋은 토지를 선택하고 집의 향은 채광을 위해 “남동, 남서, 남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어서, 환기에 대해서는 목구조가 자연환기에 유리하지만 주의에 소홀할 수 없고 바닥판 아래의 통기에 유의해야 하고, 방습에 대해서는 벽 재료의 기공에 습기가 차면 환기력이 떨어지고 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면 병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청결에 대해서는 특히 변소와 하수의 청결과 정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1)</sup> 주거지와 주택재료, 주택의 청결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다룬 것이다.

## 5. 결론

이상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잘 알려져 있듯이 한말 주거담론의 초점은 위생 문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각급 학교에서 교수된 주거관련 내용 역시 생리와 위생분야의 한 지식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생리 및 위생분야가 중요하게 교수된 이유는 생리와 위생에 관한 여러 지식을 익혀서 각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또한 개인의 위생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이 뱀 국가행복을 安享코즈”<sup>22)</sup> 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생리 및 위생 분야 내용 중에 등장하는 주거내용은 개인위생의 실천과 관리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졌지만, 더 나아가 근대국가의 성립, 근대국가를 이루는 건강한 근대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근대 초기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유포된 근대적 주거지식은 근대적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의 관리라는 계몽의 차원에서 보급되었고, 이 때문에 교과용도서를 통한 근대적 주거지식은 주택위생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21) 三島通良, 『中等生理衛生教科書』, 東京: 金港堂書鋪株式會社, 1905, 126-130면.

22) 安鍾和(譯述), 『初等生理衛生學大要(全)』, 京城: 廣德書館, 1909, 2면.

19) 大森千藏(編), 『普通生理衛生學』, 東京: 松榮堂, 1906, 202-203면.  
20) 같은 책, 204면.

둘째, 생리 및 위생분야에서 주거위생 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주거위생이 공기나 물의 성질 혹은 신체의 생리작용과 같은 지식의 일부로 소개되었다. 논리적으로는, 습기 차고 더러운 토양에 잠재한 나쁜 기운이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장기설과 인체의 호흡과 공기의 성질과 같은 생리학·물리학·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들은 주거위생 지식이 새로운 뿐 아니라 과학적이며 근대적인 논의로서 받아들여짐으로써 효과적으로 유포되도록 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내용을 보면, 먼저 위생적 주거를 바람직한 주거로 전제한 뒤 환기, 채광, 방습, 청결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거의 위생적 관리요령의 소개가 많고, 주거지와 벽체 재료의 선택, 개구부·바닥·창호·방의 향 등 유의해야 할 계획기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중등 정도 교육에 사용된 교과용도서이자 생리 및 위생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진 탓에, 대부분 간단하고 단편적인 내용에 머문다.

넷째, 일본어 책을 번역하면서 김하정이 한국의 온도의 장점을 서양이나 일본의 난방방식과 비교적 관점에서 강조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주거지식은 전통적인 주거를 위생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말 각급 학교에서 생리 및 위생분야 교과목도서의 주거지식은, 신문, 잡지, 학회지와 같은 매체보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보급된 측면이 있고, 새로운 주거에 관한 새로운 인식, 특히 위생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주거관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통적 주거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채광, 환기, 건조와 같은 주거계획 조건들은 근대적 주거의 중요한 계획조건으로 자리하게 된다.

### 참고문헌

[1]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도서, 교육출판사, 1973  
 [2]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3] 김명선, 한말(1876-1910) 근대적 주거의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김성학, 서구 교육학 도입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5] 박종석, 개화기 과학교과서의 발간실태와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6] 유방란,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이면우, 한국 근대교육기(1876 ~ 1910)의 지구과학교

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8]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9] (대한제국)학부편집국, 교과용도서일람(4·5판), 1910.1, 1910.7  
 [1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문화사, 1977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사료집성(I ~ X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4

김명선(Myung-Sum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